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제14권 717호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2023년09월03일(가해)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2023년 <사목목표>-행복의 해

[보아라, 내가 오늘 너의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신명 30,15)]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8:0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2023년 9월 3일 [(녹) 연중 제 22 주일]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제자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읍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 **입당 성가 19 (주를 따르리)**

✧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20,7-9

✧ **화답송**



(후렴) 주 - 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 하나 이 다.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1-2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 알 렐 - 루 - 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 **봉헌 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영성체송 :**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성체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 파견성가 285 (103위 순교 성인)**

※ 오늘의 묵상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 사도를 두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16,17-18).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단락인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두 단락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베드로에게 내려진 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저승의 세력도 이겨 낼 교회의 반석으로 뽑힌 베드로였지만, 곧바로 사탄이요 예수님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하느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본모습을 알아보게 된 베드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의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 수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운명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도가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임금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시며 큰 권능과 강한 힘으로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처럼 아무런 힘도 써 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쓰러져야만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분이 어떻게 당신 백성을 구하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수난을 거부한다면 결국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가장 큰 적대자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정복당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 운명에 순종하심으로써 당신 백성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명예와 권력, 영광과 승리를 좇는 데 익숙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역설적인 구원의 신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여 주듯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입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기도문 안내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9월 3일 연중 제22주일	빅토리아	김영희 마리아	유현자 글라라		김건호 데오필로
	나나이모	정영애(아네스)	조계숙(체칠리아)	박지성, 고예은	이유빈 스텔라
9월 10일 연중 제23주일	빅토리아	김영희 마리아	서승희 안젤라		김건호 데오필로
	나나이모	임종찬 요셉	임순복 데레사	지 민, 고귀한	이유빈 스텔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사도회의 결과 안내

9월 17일-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9월20일)로 봉헌.

9월 24일-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9월 29일)로 봉헌.

주일학교 교리 교사 모집.

심자가의 길 교체-성당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 (11월-로컬 성당 주임 신부 부임 후 논의)

▶ 한가위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사무장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전례부장

▶ 주일 학교-매주 주일 오후 2시(Parish hall)

다음 주(9월 10일) 주일학교 개학합니다.

▶ 첫 영성체 교리-매주 주일 오후 1시(Parish hall)

백주원(바오로), 백시원(스테파노), 김재휘(마티아)

김하정(로사), 김소정(안젤라)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당 부속 건물 사용 안내

Pope John hall-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없음.

Parish hall-11월 1일 로컬 성당 신부님 부임 후 사용 여부 결정

▶ 전례 봉사자 모집

미사 전례가 하느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 대전에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집합니다.

*전례봉사 및 독서 - 강보녀 모니카 전례부장

*성가대, 반주 봉사 등 - 단장 김주자 카타리나

*나나이모- 김미나 사라

*남녀노소, 경력, 무관 합니다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 100만단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629,840

이번 주 : 379 현재 : 630,219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들의 정성 (2023년 09월 03일)

나나이모 봉헌금	\$ 350
나나이모 교무금(2세대)	\$ 200
빅토리아 봉헌금	\$ 340
빅토리아 교무금(3세대)	\$ 700
봉헌금 소계	\$ 1,590
감사 헌금-	\$
매일 미사-	\$ 65
합 계	\$ 1,655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9월 순교자 성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하여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듬해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축일)'로 지냈는데, 이날이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 박해(1846년) 때 순교한 79위 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이가 순교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8년에는 병인박해(1866년)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었다. 1984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하여 이들 103위 복자를 시성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들 가운데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지역에서 현양되던 124위를 시복하였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자 성월'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1925년 79위 시복 이후로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 한 달을 복자 성월로 지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의 103위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빅토리아

교우 Business 안내

HARBORD
 INSURANCE

자동차 / 주택 / 상업
 / 여행자 보험

문창주 에릭

ericm@harbordinsurance.com
 150-805 Cloverdale, Victoria
 250-889-5650
 harbordinsurance.com

 **PRIMERICA**

RESP / RRSP / TFSA 펀드
 생명, 연금, 여행자 보험
 변영호 리처드

www.primerica.com/richardbyeon
 250-893-3355

 **Acupuncture & Massage Clinic**

침, 부항,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자동차 사고 및 각종 통증

RA.c, JJ Kim 250-884-8182
 발마사지 Kevin 250-884-6462
 2043 Oak Bay Ave.

 **KUSHI ISLAND**

스시 아일랜드
 Japanese restaurant
 사시미, 롤, 우동, 라멘

박성배, 정혜숙 크리스티나

#105-1633 hillside ave victoria
 778-433-8488

치킨 649

CHICKEN 649

Korean Fried Chicken

심환규 가브리엘, 김희진 가브리엘라
 2224 Quadra St, Victoria
 250-590-6491

WINKS MARKET

한국식품점
 현대해운 / CJ 항공 택배

이동석 안토니오

250-885-9497
 250-360-2838

**빅토리아
 유현자 부동산**

밴쿠버 아일랜드 모든지역
 (집, 비즈니스, 상가건물)
 유현자 글라라

YouTube: cuvictoria24
 250-858-6775

SQUEAKY'S LAUNDROMAT

박찬일 스테파노

3601 Shelbourne St.
 Victoria, BC
 250-721-2420
 250-514-1831 (Cell)

squeakyslaundromat@gmail.com
 www.squeakyslaundromat.com

**가드닝
 집수리**

개인주택 레노베이션 전문
 이석태 요셉

250-889-2500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나나이모

교우 Business 안내

Umai Sushi

일식 레스토랑

이효열 오틀리아

Nanaimo North Town Centre
 4575 Uplands Dr, Nanaimo
 250-585-8900 (나나이모)

Nana Sushi

스시, 롤, 라멘

김시나 드보라, 김시영 아네스,
 김대우 시몬

14 Victoria Crescent, Nanaimo
 250-591-0755 (나나이모)

SERIOUS COFFEE


이순재 요셉
 이유빈 스티라

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er (VICC)
 #300-60 Commercial st. Nanaimo
 250-591-1065

이 광고란은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사라, 604-219-5113